2018년 사업 보고서

조직

회원 현황

• 2018년 12월 31일 회원 현황

		시민행동				센터		
회원분포			892			203		
		52	0	372				
항목	계	일반회원	자원회원	후원회원	준회원	구0 구0	좋은기업	좋은예산
계	1,095	496	24	128	244	49	12	142
CMS	719	432	0	104	0	36	12	135
자동이체	21	7	0	6	0	6	0	2
평생	62	57	0	1	0	1	0	3
직접납부	49	0	24	17	0	6	0	2
보류	244	0	0	0	244	0	0	0
회비분포		8,317,5		,500		3,620,000		
		6,862	,500	1,455,0	000			
항목	계	일반회원	자원회원	후원회원	준회원	戌0 戌0	좋은기업	좋은예산
계	11,937,500	6,862,500	0	1,455,000	0	1,355,000	240,000	2,025,000
CMS	11,297,500	6,642,500	0	1,155,000	0	1,295,000	240,000	1,965,000
자동이체	640,000	220,000	0	300,000	0	60,000	0	60,000
직접납부	0	0	0	0	0	0	0	0

● 2018년 변동사항

○ 신규 가입: 46명 (약정회비 55만원 증가)

○ 탈퇴: 8명 (약정회비 8만8천원 감소)

○ 회비 증액 혹은 납부 재개: 5명 (약정회비 9만원 증가)

○ 회비 인하 혹은 보류: 2명(약정회비 2만5천원 감소)

사무처 현황

상근: 8명

○ 상근: 김민철, 박준우, 채연하, 최승우

○ 상근: 이기수, 이필상, 정홍순

○ 파견: 오관영

• 연수 참여

- 총리실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 참가자: 채연하 국장
 - 기간: 6월 25일(월)~7월 3일(화)
 - 대상지: 영국
 - 주요 내용: 민관 거버넌스 / compact 협약 사례 등
- ㅇ 미 국무부 연수
 - 참가자: 김민철 팀장
 - 기간: 10월 13일(토)~10월 25일(목)
 - 대상지:미국
 - 주요 내용: 미국 내 대표적 시민단체들의 운영 사례
- 인턴십 프로그램
 - 2017-18 경희씨티 인턴십
 - 기간: 2018년 1월 2일 ~ 2018년 2월 12일
 - 대상자
 - 박경현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과정, 도시사회학)
 - 진영호 (중앙대 대학원 석사과정, 정치학)
 - 주요 활동
 -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조사
 - 2010년 및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조사
 - 기간 중 진행된 단체 사업에 참여 및 후기 작성 등
 - 2018-19 경희씨티 인턴십
 - 기간: 2018년 12월 17일 ~ 2019년 2월 7일
 - 대상자
 - 이현정 (중앙대 유럽문화학부 3학년)
 - 주요 활동
 - 부천 심곡천 생태하천 사업 사례 조사
 - 기간 중 진행된 단체 사업에 참여 및 후기 작성 등

회의 현황

총회

- 정기 총회
 - 기간: 2월 26일(월)~3월 6일(화)
 - 장소 및 방식: 시민행동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안건 의결: 2017년 사업 및 재정 보고, 2018년 사업 및 재정 계획, 10기 임원 선출의 5개 안건이 모두 승인 됨
 - 2017년 가입 회원 총회 안건 설명회
 - 총회 기간 중인 2월 28일(수) 저녁 개최
 - 회원 2명 참석

운영위원회

- 1월 운영위원회
 - 1월 4일(목) 17시, 삼경교육센터 3층 회의실 (서울역 인근)
 - 참석: 김태일, 김주일, 유수훈, 류성민, 박준우, 채연하, 김민철
 - 참관: 이기수, 최승우, 박경현, 진영호

- ㅇ 주요 내용
 - 2017년 평가 및 2018년 계획안 검토: 후첨 자료 참조
 - 제10기 임원진 인선
- 10기 운영위원 상견례
 - 3월 30일(금) 저녁, 서울시청 부근 음식점 우리집
 - o 신임 운영위원 전원 참석
- 5월 운영위원회
 - 5월 15일(화) 저녁, 복성각 (시청역 인근 중국집)
 - 참석: 강장묵, 김주일, 유수훈, 조민지, 박준우, 최승우, 채연하
 - 참관: 김민철, 정란아
 - ㅇ 주요 내용
 - 1~4월 사업 진행상황 심의
 - 2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구성 결의
- 10월 운영위원회
 - 10월 28일(일) 15시, 김포효원연수문화센터 분임토의실
 - 참석: 강장묵, 김태일, 류성민, 조민지, 박준우, 채연하
 - 참관: 김민철, 김영홍
 - ㅇ 주요 내용
 - 1~10월 사업 진행상황 심의
 - 창립19주년 행사 준비상황 검토
 - 참여예산 교육 사회적 기업 설립 방안 논의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참여 경험 및 미 국무부 연수 경험 공유

기타 조직 관련 사항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참여자 기부내역 제출: 1월 8일
 -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중
- 회계감사 수행
 - 2월 4일(일) 조승만 감사에 의해 진행됨
 - 회계 정리 방식에 관한 조언
- 윤영진 이사장 사은회
 - 1월 22일(월) 저녁
 - 김재훈 전 예산감시위원장, 이상근 전 운영위원, 하승창 전 사무처장 등 전직 임원 및 상근자 **9**명 참석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10월 15일(일) 국세청 홈택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제출: 10월 15일(일) 국세청 홈택스
- 창립19주년 행사 <열아홉에서 스물이 되는 과정>
 - 11월 22일(목) 18시-23시, 홍대 카우카우펍
 - 참석자 약 70명
 - 지출: 2,903,590원
 - 수입: 7,920,000원 (특별모금 대상자는 별도 집계)

재정 현황

• 2018년 대차대조표 및 운영성과표: 자료 별첨

사업 진행 상황

요약

- 당초 사업을 집중사업과 일상사업, 연대사업과 시범사업의 4개 유형으로 구분
 - 집중사업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할 사업
 - 일상사업은 각 단위의 기본 활동을 위한 정례적, 일상적 사업
 - 연대사업은 외부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자체 계획과 역량에 전적으로 좌우되기 어려워 별도로 분리함
 - 시범사업은 구체성이 부족하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제나 사업으로 성과보다 가능성 확인을 중심에 두었음
- 집중 사업으로는 20주년 기념사업과 지역개발예산/밑빠진 독상이 선정되었음
- 20주년 기념사업
 - 20주년 기념사업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2년에 걸쳐 진행하기로 계획되었으며, 준비체계 구성, 시민운동 변화를 위한 간담회,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20주년사 발간, 회원참여예산제 도입, 회원확대 캠페인, 특별모금, 웹 개편 등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사업 진행 중에 서울시 NPO 지원센터의 '조직변화실험실-건강하게 세대교체 준비하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20주년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함.
 주제별 간담회 3회, 회원 FGI 2회, 전현직 임직원 심층면접 10회, 사무처 및 임원 워크숍 3회가 진행되었음.
 - 이 과정에서 미션/비전의 재확립 필요성, 충원 필요성, 효율적 업무분장 필요성, 근로조건 등 규정 정비 필요성, 회원 커뮤니케이션 강화 필요성 등 조직 차원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 및 진행하였음.
 - 반면, 20주년사 작업 및 이와 연계된 특별모금 활동, 회원가입 캠페인 등이 부진하였음. 또한 회원참여예산제에 대한 구체적 아이디어가 마련되지 못했음. 주제별 간담회의 경우 조직 이슈에만 집중되어 시민사회운동 전체에 대한 이슈를 다루지 못했음. 웹 개편의 경우 추진할 팀조차 만들지 못함.
 - 사업 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무처 인력 부족이 사업 추진의 주요한 걸림돌이 되었음. 충원 및 조직정비와 함께 2019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개발예산 / 밑빠진 독상
 - 반복되는 낭비성 지역개발예산의 구조 분석과 지역별 사례 발굴 및 주요 사례에 대한 밑빠진독상 시상을 결합하는 형태로 계획되었음
 -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 지방 산업단지 개발, 개발 사업에서의 공공갈등, 공원일몰제, 도시재생 등에 관한 이슈를 발굴하고 간담회의 형태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지방의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강좌를 진행함. 이를 통해 이슈 제기 및 지역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낸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정보의 불균형과 콘텐츠 및 전문적 역량의 부족,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 유인 부족으로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함. 이로 인해 밑빠진 독상과의 연계 또한 이루어지지 못함. 2019년에는 도시재생 및 생활형 SOC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계획임.

- 밑빠진 독상의 경우 지역개발 사업 이외에 국회 예산낭비에 대한 시상도 계획되어 있었으나 연대단위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음. 독상 선정 및 수여 방식을 좀 더 용이하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일상 사업으로는 참여예산 사업, 예정만세, 시민포럼, CSR 토론회 등이 계획되었음.

• 참여예산

- 참여예산의 수요 폭증으로 인해 약 30개 지역에 걸쳐 150회 이상의 교육이 진행되어 3,000~4,500명 정도의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짐. 현재 참여예산 교육을 하는 곳들 중 교육 콘텐츠의 질 및 시민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서대문구의 경우 13개동 전체에 대한 동단위 교육까지 진행하였음.
- 국민참여예산 도입,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 전국 평가 등의 이슈들에 대한 간담회 개최, 활동가 3명의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전세계 참여예산 워크숍 참가 등을 통해 참여예산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예산 교육 업무의 과중, 지역 시민사회에서의 참여예산 관심 및 역량 약화에 따른 네트워크 약화와 강사 양성의 어려움, 지역 참여예산의 획일화 및 지역사회 이슈와의 괴리,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음.

• 예정만세. 시민포럼. CSR 토론회

- 시민포럼은 기본 사업 이외에 시민행동이 주목해야 할 현안에 대한 접근을 위해 계획되었음. 자영업, 가상화폐, GM대우 사태, 지방선거 평가 등 시민행동 사업과 연관된 현안들을 월 1회 꼴로 다루었으나, 내부 교육의 효과에 그칠 뿐, 사업으로의 연결성이 부족한 한계를 드러냄.
- CSR 운동 전환을 위한 토론회는 진행되지 못함. 사무처 내 전담자를 두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고민이 부족함.
- 예정만세는 4월부터 방송 재개하여 총 8회 진행함. 지방선거 전까지는 선거와 관련된 이슈를,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역 활동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방송을 내보냈으며 회당 100명 내외의 청취자를 확보하였음. 그러나 함께 진행한 정보공개센터의 사정 변화로 지속 여부가 어려운 상황임.
- 연대 사업으로 국회개혁, OBI 국제투명성 지수, 활동가 공부모임 등이 계획되었음.
 - 국회개혁 사업은 정책개발비 소규모 연구용역, 정책자료발송비 영수증 이중사용 이슈 등에 대한 이슈 제기 및 국회의원 4명 고발을 통해 2억 이상의 예산을 환수하는 성과가 있었음. 현재 특경비 등 추가적 정보공개 예정임. 다만, 연대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좋은예산센터의 작업임인 잘 인지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향후 대안제시 활동을 통해 좋은예산센터의 성과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4월에 OBI 국제투명성 지수 결과 발표회를 진행했으며, 차기 조사 계약이 진행 중임. 예산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성과의 확산을 위한 추가적 활동은 진행하지 못함.
 - 활동가 공부모임을 운영하여 청년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려 하였음. 엔틸드의 작곡 교실 등이 진행되었으나 시민행동과의 연계성이 약하였음.
- 시범 사업으로 직장 민주주의, 시민교육 보드게임 개발, 불공정 약관 모니터링 등이 계획되었음.

- 직장 민주주의 사업의 경우 가이드북 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원고 작성 중임. 인적 역량 부족으로 본격적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나, 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음.
- 시민교육 보드게임의 경우 격주간으로 진행되는 정기 워크숍을 통해 프로토타입 개발 단계가 진행되고 있음.
- 불공정 약관 모니터링 사업은 주체적 역량 부족으로 추진 중단.
- 이 외에 현안 대응으로 개인정보 규제 완화 이슈를 둘러싸고 관련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응 중이며, 그 외에 개헌시 국민안전권 신설 요청 기자회견,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조사 보고서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등을 타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진행함.
- 가능성을 보여준 사업들이 많았음에도 이를 현실화시키는데 부족함이 있었음. 충원 미실시와 참여예산 사업 수요의 폭증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사무처 인적 역량의 한계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정리와 함께 충원을 통한 사무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집중 사업

집중사업: 20주년 기념사업

	_	
황 내	일지	 4월 18일: 회원장여예산 기획모임 1차 회의 5월 31일: 회원모금팀 1차 회의 6월 4일: 20주년사팀 1차 회의 6월 12일: 서울NPO지원센터 조직변화실험실 사업 계약: '건강하게 세대교체 지속하기' 6월 19일: 20주년사팀 2차 회의 6월 20일: 조직변화실험실 사업 킥오프 회의 7월 10일: 상근활동가 인터뷰: 박준우 처장, 채연하 국장 7월 20일: 상근활동가 인터뷰: 학준우 처장, 재연하 국장 7월 30일-31일: 사무처 워크숍 8월 10일: 회원참여예산 기획모임 2차 회의 8월 14일: 주제별 간담회 1차-활동가 편 ○ 발표: 신미지(참여연대 평화군축팀 선임간사), 김상규 (노무사) 8월 20일: 조직변화실험실 사업 중간 보고 9월 7일: 주제별 간담회 2차-회원 참여 편 ○ 발표: 정남진(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김광원(전 수원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장) 9월 30일-10월 1일: 사무처 워크숍 10월 25일: 회원 FGI 1차 ○ 대상: 10년차 이상 회원 4명 10월 25일: 전직 임원/상근자 인터뷰: 김건우, 김지영 10월 26일: 회원 FGI 2차 ○ 대상: 5년차 이하 회원 5명 10월 28~29일: 사무처-임원 워크숍 10월 29일: 주제별 간담회 3차-시민운동 편 ○ 발표: 조철민(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11월 1일: 전직 임원/상근자 인터뷰: 이영면 11월 9일: 조직변화실험실 사업 결과 보고 11월 1일: 서울시NPO지원센터 조직변화실험실 공유회 참석 11월 22일: 창립19주년 행사
	주요 활동	- 팀 구성 • 회원참여예산팀: 최승우, 김민철, 김광원, 정남진, 황지성, 원유준, 강준원 등 • 20주년사팀: 유수훈, 이종은, 채연하, 이기수 • 회원/모금팀: 유수훈, 조민지, 박준우, 김민철 • 웹팀: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태임 - 조직변화실험실 사업 참여 • 지원처: 서울시 NPO 지원센터 • 사업 목적/컨셉: 건강하게 세대교체 준비하기 • 사업 내용 • 조직진단 • 내용

-	_	
		● 상근활동가 인터뷰 (4회) ● 공동대표단 심층면접 (3회) ● 회원 FGI (2회) ○ 10년차 이상 회원 집단 ○ 5년차 이하 회원 집단 ○ 5년차 이하 회원 집단 ● 전직 임직원 심층면접 (3회): 김지영, 김건우, 이영면 등 ■ 전직 임원 심층면접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익지식전문가그룹 소셜밸런스에 의해 진행됨 ○ 주제별 간담회(3회): 활동가 상, 회원 참여, 시민운동 변화 방향 등 ○ 워크숍: 사무처 2회, 임원 1회 - 회원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 설문조사 ○ 6월 중 이메일과 온라인으로 진행 ○ 8월 분석 결과 발표 ● 사례조사 ○ 민달팽이 유니온, 수원지역 주민모임 ○ 주제별 간담회에서 당사자 초청 발표 - 창립19주년 행사 ● 총 70명 참여 ● 지출: 2,903,590원 ● 수입: 7,920,000원 - 20주년 홍보물 제작 중 - 회원 가입 및 회비 증액: 총 37명 46만원 - 특별모금: ● 약정: 26,980,000원 ● 입금: 13,260,000원
평가	성과	- 조직변화실험실 참여로 기념사업 추진 활성화 계기 마련 ● 시민운동 변화 방향 간담회: 주제별 간담회 3회 개최 ● 20주년사 인터뷰: 전직 임직원 3명 심층 면접 ● 지속가능보고서 이해관계자 대화: FGI 2회 및 심층면접 10회 - 조직 관련 주요 이슈 도출 ● 충원 필요성 ●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적 업무분장 필요성 ● 근로조건 등 규정 정비 필요성 ● 미션/비전의 구체화 필요성 ● 회원 커뮤니케이션 강화 필요성
	문제점	- 전반적으로 진행 속도가 느림 ■ 20주년사 및 이와 연계된 특별모금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 창립19주년 행사를 계기로 일부 전현직 임원에 대한 약정 및 후원이 이루어졌으나 시작의 의미에 그침 ■ 20주년 홍보물 제작이 연말에야 준비되면서 회원가입캠페인 또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 회원 참여예산의 경우 회원 참여에 관한 논의에 그치고 회원 참여예산에 대한 구체적 아이디어 발굴 못함

	 주제별 간담회의 경우에도 조직 이슈에 집중했을 뿐, 시민운동 전체에 대한 의제 제시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함 웹 개편은 팀 구성조차 진행되지 않음 재정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2019년까지 회원 가입 및 회비증액을 통한 월 약정회비 240만원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8년 증가분이 46만원으로 2017년 수준에 불과 2019년까지 전현직 임원/상근자 대상으로 5천만원 모금 계획이나 현재 약정액 2,700만원 수준으로 절반에 그침 문제의 주된 원인은 체계적 진행을 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점 2018년 사업 확대 및 참여예산 교육 수요의 급증 각 팀별로 상근자들의 역할 분담이 되었으나 담당 사업 업무 증가로 인해 20주년 기념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음 사무처의 인력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향후 방향	- 회원 참여예산 도입은 향후 과제로 연기 - 총회 전에 규정 정비, 업무분장 효율화, 회원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충원 등 조직 정비 진행 - 2019년 상반기에 20주년사 및 특별모금 작업, 비전 미션 구체화 작업 진행 강화 - 임원 대상 회원 확대 할당제 시행 및 사업을 통한 회원 확대 프로세스 마련

집중사업: 지역개발예산 모니터링

● 3월 6일: 옥천군 - 옥천신문사와 함께 지역개발예산 문제 제기 합의 ● 3월 12일: 수원시 - 수원 시민사회단체와 지역개발예산 문제 제기 합의 ● 4월 10일: 옥천군 ○ 간당회 "옥천군 산업단지 관련 내용을 제기하자" ○ 옥천신문 탐사보도 진행 후 추가 논의 ● 4월 18일: 수원시 ○ 수원시 지역개발 관련 도시 공원 일몰제/택지 개발 문제 제기 ○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간당회 2회 추진 계획이었으나 선관위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전달,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 5월 11일: 문호승 감사관 방문 - 지역 개발예산 감시 교육 프로그램 자문 ● 5월 14일: 파주시 - "막무가내 지역개발을 다시 생각하자" 토론회 ● 8월 7일: 도시공원일물제!! 재정 및 예산 대안 시나리오 모색을 위한 시민간당회 ○ 발표: 이상근 회계사 ○ 지정토론: 박문호 교수(서울시립대) ● 9월 12일 막무가내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갈등 사건발표회

	 사회: 최승우 국장 발표: 하승우 더 이음 연구위원 10월 6일: 지방의원 특강 <하루에 마스터하는 지역개발사업 분석 방법론> 강사 및 분야 민병덕 변호사(법률), 김태일 공동대표(경제성분석), 김병석 감사관(감사기법) 의원 5명등 총 14명 수강 12월 10일: 도시재생사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 12월 17일: "막무가내 지역개발 사업은 지역의 미래가 아니다!" 간담회 개최 사회: 최승우 국장 발표: 김광원(수원시 행궁동 주민), 김민철 팀장
주요 활동	-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성과	- 막무가내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 이슈 제기 - 막무가내 지역개발 사업의 문제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필요성 공유 및 공감대 형성
평가 문제점	- 막무가내 지역개발 사업 내용 파악의 어려움: 정보의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 및 인력 또는 네트워크의 필요성 (역량 부족) - 막무가내 지역개발 사업을 공론화할 수 있는 콘텐츠 부족: 막무가내 지역개발 사업의 복잡성, 사실관계보다는 정치적 문제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문제제기는 정당하지만 주도성을 확보하지 못함 ● 지역에서 막무가내 지역개발 사업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연대해야 할 유인이 약함 ● 역량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장점일 수 있음
향후 계획	- 2018년 막무가내 지역개발 사업의 문제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필요성 공유 및 공감대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인 프로젝트 방식인 아름다운 재단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음

● 시민사회 네트워크 형성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 있음
- 막무가내 지역개발 사업을 공론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집중

● 도시재생, 생활형 SOC 등

● 밑빠진 독상과 연계성 확보

집중사업: 밑빠진 독상

활동 내용	일지	- 특별한 진행상황 없음
	주요 활동	- 독상 후보로 예상된 사업(국회개혁 프로젝트 일환, 지역 개발 사업 중 검토)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의 시상을 하지 못하게 됨
	성과	- 구체적 성과는 없으나 개선 방향 논의 중
평가	문제점	- 밑빠진 독상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는 지속되고 있음. 사무처 내에서도 본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 있음 지난 사무처 워크숍에서의 논의 결과 독상 선정과정을 보다 가볍게 진행하고 시민 및 회원들의 접촉이 쉽도록 독상 결정 방식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음 2010년 이후 독상 선정 기간은 비정기적이었음. 이러한 방식은 상의 후보가 발생하는 기간이 불특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검증기간이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었음.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9년 보다 용이한 방식의 밑빠진 독상을 구상하려고 함.
향후 계획		- 2차례 사무처 워크숍 통해 기존의 독상 수여 및 검토 방식을 변경하고 좀 더 대중적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함

일상 사업

일상사업: 시민포럼

활동 내용		1월 30일: 북토크 "자영업을 통해 본 한국사회: 최저임금, 임대료, 그리고 복지국가" 개최
----------	--	--

		■ 동국대 이주하 교수 ■ 연세대 최영준 교수 • 2월 7일: "가상화폐와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그리고 가상화폐" 개최 ○ 사회: 이필상 교수 ○ 발표: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지승훈 (OEZ소프트 대표) • 4월 20일: "한국GM 철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개최 ○ 사회: 이필상 교수 ○ 발표: 김현철 군산대 교수 • 7월 12일" "지방선거 이후 시민사회의 과제" 개최 ○ 사회: 채연하 국장 ○ 발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 토론: 조민지 운영위원, 차승연 서대문구의원, 윤병국 부천시장선거 시민후보
	주요 활동	- 포럼 개최 - 페이스북 라이브, 녹취록 제작 등을 통해 논의 내용 공유
	성과	- 총 4 회 포럼 진행(격월 1 회 꼴로 진행) - 해당 시기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 확대
평가	문제점	- 북토크를 제외하면 회원 및 시민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 - 논의 내용의 확산 및 향후 활동으로의 연계 부족 - 7월 이후 타 사업들의 본격적 추진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림
향후 계획		- 사업 필요성 재검토 및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재편 필요 - 지역활동가, 청년 지방의원 등과 연계 가능성 검토

일상사업: 예정만세

활 당 용	일지	 3월 13일: 2018년 예정만세 방송 기획 회의 4월 13일: '국회 감시의 두 날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참여' 송출 4월 27일: '정보기본권과 한국의 예산투명성지수(OBI)' 송출 5월 11일: '지방의회 천태만상, 이거 실화냐?' 송출 6월 1일: '알권리감시단이 파헤친 서울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송출 6월 8일: '지방선거 정당별 공약 브리핑' 송출 7월 29일: '지역에서 여성운동 하기' 송출 9월 27일: '지켜보자 지방의회, 바로잡자 의정활동!!' 송출
	주요 활동	- 4월부터 방송 시작하여 총 8 차례 방송 송출 - 올 해부터 김민철활동가와 조민지 운영위원이 새롭게 예정만세를 진행하고 있음 시민행동과 정보공개센터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할 수 있도록 방송 내용을 구성함 상반기에는 지방선거와 연계된 방향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지역

		활동가들의 활동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평가	성과	- 총 8회 송출 - 회당 평균 100명 내외의 청취자 수	
	문제점	- 올 해부터 임대했던 방송장비를 반납 되어 인근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음.(시간당 1만원) 안정적인 녹음 진행을 위해 방송장비 마련 혹은 보다 저렴한 방송 공간 확보가 필요함 - 담당자들의 업무 증가와 사고로 정기적으로 송출되지 못함 - 조민지 활동가가 내년 정보공개센터 사무처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공동기획 및 운영이 어려운 상황	
향후 계획		- 시민행동 주요 사업을 알리고 홍보하는 소식 매체로 활용	

일상사업: CSR 운동의 새로운 방향

활동 내용	일지	• 3월 15일: 사업 브레인스토밍 회의
	주요 활동	- 구체적 진행사항 없음
평가	성과	- 사업 진행과 무관하게 김주일 대표가 직장 민주주의를 향후 좋은기업센터 운동 의제로 제시
	문제점	- 당초 연속 토론회를 통해 좋은기업센터 운동 방향 재설정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 진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였음 - 사무처 내 전담자가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고민의 부족
향후 계획		- 2019년 상반기 중 직장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자체 간담회 2~3회 진행

일상사업: 참여예산

활 동 내 용	일지	 ● 1월 18일: 간담회 "2018년 국민참여예산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다" 개최 ○ 발표: 한국조세재정정책연구원 오영민 박사 ● 1월 26일: 주민참여예산 사례 발표회 "2017년 주민참여예산, 새로운 고민과 시도 ○ 서울시: 최인욱 (서울시 시민참여예산과 시민협력팀장) ○ 수원시: 주영훈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전 위원장) ○ 시흥시: 오지은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	----	---

		2월 27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사회단체 설명회 개최
	주요 활동	- 시민교육 : 연간 약 150회 교육 진행
	성과	- 시민교육의 확대 및 확산: 2018년 참여예산 교육 150회 이상 진행. (교육당 약 20~30명 가정) 3,000~4,500명 시민교육 - 질 높은 교육 컨텐츠 보유: 서울시 참여예산 교육 중 시민만족도 가장 우수 - 시민교육 동단위 교육 체계 가능성 확인 및 홍보 강화: 서대문구 동단위 (13개) 6시간 교육
평가	문제점	- 참여예산 교육 업무의 과중 ● 참여예산 강사 풀 약화: 2011년 참여예산 강사 풀 양성 -> 2018년 참여예산 강사 풀 해체 (중간지원조직 취업, 지역 정치인으로 전환 등) ● 참여예산 강사 양성 어려움: 2018년 들어 참여예산 교육의 심화 (워크숍 방식의 확대)에 따른 강사 양성 소요시간 연장 - 참여예산 활동가 네트워크 약화에 따른 지역 시민사회 참여예산 주도성 약화 ● 활동가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참여(다른 부문), 지역 시민사회 업무 배치에 따른 이탈, 참여예산 업무 과중에 따른 관심 약화 (1년 주기 대응 필요) 등 ● 전국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사례 발굴 어려움 발생 -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강화에 따른 지역 시민사회 참여예산 활동가 역량 강화 필요 ●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강화에 따라 참여예산 복잡화

	경향 강화 지역 시민사회 참여예산 활동가 네트워크 여부에 따라 대응력의 차이 존재 -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다양성 약화 및 서울시 등 모범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벤치마킹 2018년 행안부 참여예산 전국평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다양성 약화 (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전국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정형화 -> 다양한 시도 및 모색 약화 - 국민참여예산 모니터링 및 대안제시 부족: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참여예산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 참여예산 활동가들은 상대적으로 국민참여예산 관심 낮음 - 사회이슈와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이슈의 괴리
향후 계획	- 참여예산 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강화 ● 참여예산 강사 풀 확대 ● 참여예산 교육 기획 및 콘텐츠 생산 역량 강화 - 참여예산 활동가 네트워크 약화에 따른 지역 시민사회 참여예산 주도성 약화에 대한 대응 시도: 사회 이슈와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이슈의 결합 방안 모색 (다문화 참여 강화 등) -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강화에 따른 지역 시민사회 참여예산 활동가 역량 강화 방안: 전국 참여예산 활동가 네트워크 활동 강화 (공동 기획 및 사업 추진, 정서적 유대감 고취 등) -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다양성 약화 및 전국 참여예산 정형화에 대한 대안 제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적합한 사례 발굴 및 공유 - 국민참여예산 모니터링 강화

연대사업

연대사업: 국회개혁

활 내	일지	 1월 5일: 뉴스타파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1부: 세금의 블랙홀 방송 1월 11일: 뉴스타파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2부: 국회는 328억 원을 어디에 썼나? 방송 8월 28~29일: 국회 정책개발비 지출내역 정보 열람 10월 17~19일: 뉴스타파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10월 19일: "국회는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라" 기자회견 및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소규모정책용역 지출내역 공개 10월 24일: 정책연구용역 비리 국회의원 고발장 접수 11월 1일: 국회개혁 어벤져스 토크쇼 '어셈블리 워' 개최 11월 22일: 국회의원 입법및정책개발비, 정책자료.홍보물발간비 반납 현황 발표 12월 4일: 영수증 이중제출, 세금빼쓴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 12월 19일: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	----	---

		<u>집행실태 공개 기자회견</u>
	주요 활동	-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 공동으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음 -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온 정보공개 관련 소송들이 잇달아 마무리되면서 2018년 많은 예산 관련 정보들이 공개되었음 -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홍보 및 정책자료발송비 등 많은 부분에 대한 국회 사용 예산에 대한 영수증 및 근거자료들이 최초록 공개되고 있음 - 분석된 내용에 대해서는 네 개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있으며 데이터 자료는 모두 스캔방식을 활용하여 뉴스타파의 20대 국회의원 예산 사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이은재 등 4명의 의원 고발 및 서청원 의원 수사촉구 등이 이루어짐
평가	성과	-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실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음 - 뉴스타파라는 독립언론의 취재를 통해 단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취재를 통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음 - 각자 단체가 가지는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제기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됨 - 입법 및 정책개발비 1억810만원, 홍보 및 정책자료발송비 1억5천4백만원에 대한 반납, 환수 조치가 이루어짐
	문제점	- 뉴스타파라는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고 주요 이슈를 설명하는 단위가 세금도둑잡아라의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인 점, 언론과의 연락 단위가 정보공개센터로 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좋은예산센터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 - 보도 및 자료에는 좋은예산센터 공동 작업임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작업임이 잘 인지되지 않음
향후 계획		- 2019년은 대안제시에 보다 중점을 두어 문제점을 정리하기로 함 - 물론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소송이나 자료 열람 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20년 총선이 있는 관계로 2019년에 본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내용은 잘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안에 대해서는 기록물 관리 및 예산관리 시스템, 정보공개문제 등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임 - 물론 모든 내용이 투명한 정보공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행동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는 같이 논의가 필요함

연대사업: OBI 투명성 지수

 활동 _{이 되}	• 4월 11일 <u>2017년 국제 예산투명성지수 조사결과 설명회</u>
내용 일시	<u>"대한민국 예산투명성 현주소" 개최</u>

		 나라살림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공동 개최 발표 ■ 2017년 예산투명성조사 결과: 김정부 (경희대 교수) ■ OBI 조사결과를 통해 본 예산개혁 과제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
	주요 활동	- 결과 발표 및 설명회 개최 - 재정개혁 TF 참여: 김태일 대표
평가	성과	- 예산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안 도출 및 정부 개혁안에 반영 - 향후 자체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축적
	문제점	- 입법청원 등 제도화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 부족
향후 계획		- OBI 차기 조사 계약 준비중 - 지자체 대상 예산투명성 모니터링 사업 진행 - 서울시 자치구 대상 모니터링 준비 중

연대사업: 활동가 공부모임

활 용	일지	생략
	주요 활동	- 엔틸드의 작곡 교실, 참여 시민 4인이 5주 과정으로 작사 및 작곡 노래 발표회 가짐 -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감시단 운영(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감시 추진)
	성과	- 엔틸드의 작곡 교실, 참여 시민 음원 등록 추진(만족도 높음) -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감시단, 5월 말 결과 공유회
평가	문제점	- 활동가 공부모임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역량강화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함께하는 시민행동 고유한 콘텐츠)로 추진되었으나, 함께하는 시민행동과의 연계성이 약화
향후 계획		- 엔틸드의 작곡 교실은 참여 시민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다시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2기 모집 - 2018년 하반기,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감시단 2기 모집 및 활동, 향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감시로 확산 및 성장 추진

시범사업

시범사업: 직장 민주주의

활동 내용	_	2일: 법무법인 한결 공익단체 지원사업 제출 15일: 사업 브레인스토밍 회의
----------	---	---

		 4월 19일: 법무법인 한결과 지원 협약 체결 11월 13일: 가이드북 작성 방안 회의 (김주일, 하나리, 박준우, 김민철)
	주요 활동	- 직장민주주의 가이드북 제작 지원사업 제출 및 선정 - 가이드북 집필진으로 하나리 예비노무사 섭외 - 11월부터 원고 작성 작업 진행 중
평가	성과	- 가이드북 제작 지원금 200만원 확보 - 가이드북 집필 방향 설정 - 직장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심화
	문제점	-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사전 작업(토론회 등)을 위한 재원의 부족으로 추진이 늦어짐
향후 계획		- 총회 전 직장 갑질을 주제로 가이드북 제작 - 직장 민주주의 운동 방향 설정을 위한 내부 간담회 개최 및 연구 사업 진행

시범사업: 시민교육용 보드게임 개발

활동 내용	일지	
	주요 활동	격주 수요일 정기 워크숍 진행
	성과	정치, 사회적 문제, 역사에 기반한 보드게임 기획개발 논의 지속 보드게임 관련 외부단체의 교육 및 자문요청
평가	문제점	 연계하던 단체의 여건 변화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움: 주요참가자들의 군입대,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증원 등의 대책 논의중 정치보드게임 개발의 높은 난이도로 인해 논의가 지연되고 지치는 현상이 발생
향후 계획		자체 역량을 통해 연내 프로토타입 제작까지 진행

시범사업: 불공정약관 모니터링

활동 내용	일지	
	주요 활동	- 진행 사항 없음
	성과	
평가	문제점	- 박헌권 대표님 사퇴 이후 사업 추진 주체 불명확 - 오픈마켓, 이통사 등에서 일부 사안 인지하였으나 실무 역량 부족으로 추진 못하고 있음
향후 계획		-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연대 활동

• 일지

- o 2월 12일, <u>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u> 발표
- 3월 20일, [공동논평]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 5월 17일 <u>박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u> 시급하다! 공동의견서 국회 제출
- 6월 28일 [공동논평] <u>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u> 없다.
- 8월 1일 [공동논평] <u>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u>
- 8월 28일 <u>개인정보 팔아 혁신경제?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규탄한다!</u> 공동 기자회견 개최
- 8월 31일 [공동논평] <u>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u> 만들겠다는 겁니까?
- 11월 21일 [공동 기자회견]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 12월 7일 개인정보 규제완화 국회 간담회 참여
- 12월 12일 [공동 기자회견] <u>정보인권 외면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산업</u> 선진화 방안 규탄한다!

• 주요 내용

-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
- 현재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제 수준에 걸맞는 독립성과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기구로 개편
- 방통위, 금융위 등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감독 역할을 개인정보보호기구로 통합
-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된 안전 조치 및 공익성 확보

● 평가

- 통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강화를 주장해왔던 단체로서 연대 차원에서 참여
-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드라이브에 대한 제동이라는 의미에서 긍정적 측면
- 개인정보 규제를 둘러싼 대안적 해법 제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

기타 연대활동

- 1. 3월 8일 '안전하게 살 권리'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개헌안 제출
 - 참여 중인 생명안전 시민넷 차원에서 진행
 - 구조 및 인도적 처우에 대한 권리, 위험정보 요구권, 안전조치 요구권을 담은
 4개 문항의 국민안전권 개헌안을 제출
- 2. 3월 15일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킥오프포럼 참여
 - OGP는 정부의 개방, 공개, 투명성, 참여를 주요 가치로 하는 국제적 파트너쉽
 - 시민행동은 한국 OGP 민관위원회의 민간위원단체로 참여 중
 - 4차 국가실행계획 작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하는 킥오프 포럼 진행
- 3. 5월 2일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촉구 기자회견

- 가습기피해자모임 등 29개 단체 공동 명의로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전달(대상: 청와대 및 산자부 장관)
-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전고법의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삼성전자와 산자부의 반대 움직임 비판
- 대통령의 삼성전자 문제 해결 공약 이행 촉구
- 이후 한국산업환경학회에서 정보공개 타당성에 대한 발표 예정
- 4. 7월 6일 북콘서트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 이상석·하승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2018, 이상북스) 출간 기념
 - 장소:성미산 마을극장
 - 공동주최: 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
- 5. 11월 6일 OGP 아태지역회의 분과회의 <Government Innovation towards Inclusive Growth: Role of the OECD Network on Open and Innovative Government> 참여
 - OGP 아태지역회의 분과회의의 하나로 OECD 한국사무소가 마련한 행사에 토론자로 참여
 - 정부 투명성 평가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의견 제시